



즉시 배포용: 2018 년 5 월 9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를 따라 420 만 달러 규모의 고속 전기차 충전소 확장 계획 발표

뉴욕주 전 지역에서 전기차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스루웨이(Thruway) 서비스 지역 및 통근자 주차장의 현대화된 인프라

주지사의 충전 뉴욕 2.0(Charge NY 2.0) 프로그램 및 확장된 충전 인프라, 뉴욕주에서 보다 많은 제로 탄소 배출량 차량 가능 도로 촉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를 따라 더 많은 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420 만 달러 규모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으로 전기차 소유자들은 충전을 위해 스루웨이를 벗어나지 않고 뉴욕주를 종단하여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급속 충전소 확장으로 온실가스 제로 배출 차량을 운전하여 2030 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40 퍼센트 줄이기 위한 주지사의 목표에 더 많은 뉴욕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리더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교통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EV) 충전소 확장에 투자함으로써, 우리 행정부는 가스로 구동되는 차량의 배기 가스를 줄이면서 동시에 더욱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뉴욕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진보를 이루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충전 뉴욕 2.0(Charge NY 2.0) 전기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은 향후 2 년 동안 스루웨이(Thruway) 서비스 지역과 스루웨이(Thruway) 소유의 통근자 주차장에 새로운 급속 충전소들을 설치하기 위해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깨끗한 에너지 프로그램(clean energy initiative)은 주정부가 2021 년까지 충전소 10,000 개 설치 목표를 달성하고, 주지사의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을 통해 더욱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뉴욕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3 년에 충전 뉴욕(Charge NY)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공공 충전소의 수가 뉴욕주 전 지역에서 2,000 곳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새로운 확장 계획으로 뉴욕주 전

지역에 충전소 3,000 곳을 설치한다는 주지사의 2018년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프라 보강 프로젝트는 또한 뉴욕주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약 80만 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제로 탄소 배출 차량 계획으로 여러 주에서 뉴욕의 리더십 역할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설치 공사는 미드 허드슨 벨리의 서비스 지역 4곳 즉 북쪽 방향 스루웨이(Thruway) 상의 플랫킬과 몰든 및 모두 얼스터 카운티에 위치한 남쪽 방향의 얼스터와 모데나에 이르기까지 고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시험 프로그램을 확장한 것입니다. 향후 수년간 나머지 서비스 지역 23곳에 충전기가 설치될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확장 프로젝트(EV charger expansion project)의 첫 번째 단계는 스루웨이(Thruway)가 소유한 13곳의 통근자 주차장에 2대의 중속(2급) 충전소를 설치하는 공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충전하는 데 4-8시간이 걸리는 2급 충전기는 낮 시간 동안 주차할 수 있는 통근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또한 다양한 전기차를 수용하기 위해 스루웨이(Thruway) 서비스 지역 9곳에 더욱 빠른(3급) 고속 충전기를 도입할 것입니다. 3급 충전기는 30분 이내에 전기차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 충전소 및 관련 표지판은 전기차의 이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시장 조사에 따르면 설문 조사 응답자의 주요 관심사는 충전 시간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고속 충전기는 더 많은 운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재 전기차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충전 거리가 200마일이 넘는 여러 범주에서 30종류 이상의 새로운 전기차(EV) 모델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loomberg New Energy Finance)의 예측에 따르면 2040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4퍼센트는 탄소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플러그인 형태의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전기차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진일보한 노력

전기차 채택을 더욱 권장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서, Cuomo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PSC)가 전기차 사용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충전소의 수를 확장하며, 전력회사들이 뉴욕주에서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교통 분야와 함께 전기 및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전기차(EV)의 수요 및 전기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인프라를 제공하고 요금제를 설계하는 전력 회사의 역할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인프라 및 장비를 구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미 가정용 전기 고객을 고려하여 전력회사 요금제 변경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공조된 주정부 활동의 일환으로서, 뉴욕 전력청(NYPA), 뉴욕주 환경보존부(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등은 최근 전기차 충전을 위해 고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전기 고객을 위해 전기 요금을 시기 적절하게 수정해 줄 것을 공공서비스위원회(PSC)에 요청했습니다. 결국 제안된 요금 조정에 따라, 전기차 선택 증가와 가정 및 직장 충전의 증가로 인해 모든 요금 납부자의 전기 요금이 장기적으로 인하될 수 있고, 송전 및 배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수익이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를 더욱 저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는 2017년 3월에 주정부의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이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새 자동차 딜러로부터 새로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배터리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 주민들에게 최고 2,000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지난해에 5,750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35 종류의 다양한 자동차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는 새 전기 자동차에 대해 최소한 1,100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에 10,000대 이상 전기차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67 퍼센트 증가한 것입니다.

뉴욕주 에너지 금융(Energy and Finance)의 Richard Kauffma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뉴욕 전 지역에서 충전소 수를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40 퍼센트를 줄이겠다는 미국을 주도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저희는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로 전환할 것을 뉴욕 주민께 당부드립니다.”

뉴욕 전력청(NYPA)의 청장인 Gil C. Quiniones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늘어난 충전 용량과 더 커진 배터리를 장착한 최신 자동차로 전기차 운전자들이 더 멀리 이동하고 더 빠른 충전기를 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이 뉴욕시에서 올버니를 거쳐 버펄로까지 이동하면서 30분만에 도로변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통근자들이 일하는 동안 통근자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추가 충전 옵션으로 전기차의 사용을 보다 광범위하게 장려하고, 온실 가스 배출량도 더 많이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Matthew J. Driscoll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의 570 마일 시스템은 노스이스트 지역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행에 필수적인 도로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주 경제의 활력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추가 충전소를 통해 곧 미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고속도로 중 하나가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충전 뉴욕(Charge NY)

프로그램을 통해 도로에서 더 많은 전기차들이 다닐 수 있게 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사명을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의 청장인 **Alicia Barton**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루웨이 휴게소(Thruway travel plazas) 및 통근자 주차장에 새로운 충전소를 추가하는 일은 이미 전기차(EV)를 선택한 뉴욕 주민 수만 명과 더욱 많은 수의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전기차를 더욱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Cuomo 주지사님의 적극적인 어젠다에는 일상적으로 뉴욕 주민들이 전기차(EV)와 같은 깨끗한 기술에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는 소비자가 깨끗한 교통 수단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뉴욕의 공약에 대한 보다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전기차(EV) 공용 충전소 확장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루웨이(Thruway)를 따라 현재 설치된 충전소, 뉴욕 전력청(NYPA)의 전기차 충전소 프로그램(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program), 주정부의 드라이브 클린 정책을 돕기 위해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을 통한 고객 리베이트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소개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은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뉴욕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전략입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V)은 태양열, 풍력 등의 청정 기술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뉴욕주 전력 필요량의 50 퍼센트를 공급함으로써,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보다 깨끗하고 복원력이 있으며 가격이 적정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 개혁 비전(REV)은 뉴욕주 전 지역 태양열 시장 성장률 약 1,000%를 달성하고 저소득층 고객 165 만 명의 에너지 경제성 향상, 제조, 엔지니어링 및 기타 청정 기술 분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V) 뉴욕주가 2030년까지 뉴욕주 전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40 퍼센트 줄이고, 2050년까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목표인 배출량 80 퍼센트 감축을 달성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청정에너지 기술 및 혁신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를 비롯하여 에너지 개혁 비전(REV)에 관해 좀 더 알아보시려면, www.ny.gov/REV4NY 를 방문하시고,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링크드인(LinkedIn) 등에서 팔로우하시면 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